SECTOR UPDATE

2026. 1. 14.

Innovation팀

서근희 팀장, Ph.D.
keunhee.seo@samsung.com

신수한 Research Associate
shn.shin@samsung.com

▶ 종목 정보

삼성바이오로직스 (207940 KS, 1,927,000)		
목표주가	2,200,000원	14.2%
BUY		
한미약품 (128940 KS, 424,500)		
목표주가	550,000원	29.6%
BUY		
디앤디파마텍 (347850 KQ, 91,700)		
목표주가	n/a	
Not Rated		
에이비엘바이오 (298380 KQ, 192,200)		
목표주가	n/a	
Not Rated		
올릭스 (226950 KQ, 134,100)		
목표주가	n/a	
Not Rated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헬스케어 (OVERWEIGHT)

이벤트는 끝났지만, 펀더멘털은 여전히 강하다

- JPMHC 2026 주가 조정은 이벤트 종료에 따른 단기 수급 이탈. 단기 변동성은 오히려 핵심 기술주를 선별해 비중 확대할 수 있는 기회.

WHAT'S THE STORY?

현재의 주가 조정은 실적 성장을 위한 선별적 조정 과정: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JPMHC 2026) 개막 이후 국내 바이오 섹터의 주가 하락은 기대감 선반영에 따른 모멘텀 소멸로 분석. 2021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1월이면 반복되는 현상. 대규모 기술수출은 수개월간의 후속 협의를 거쳐 확정되기 때문에 현실적 괴리가 실망 매물로 나타남. 하지만 2026년에도 항암제, 비만 치료제, AI 신약(엔비디아(NVDA US)-일라이릴리(LLY US)) 등 실질적인 글로벌 트렌드는 유지되고 있으며, 금리 인하 기대감과 구체적인 계약 성과나 긍정적인 임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2분기 다수 학회에서 핵심 데이터 공개)인 기업 중심으로 반등 가능.

- **한미약품:** 파트너사 머크 앤 코(MRK US)의 에피노페그듀타이드 업데이트 부재로 하락. 이중 맹검 임상으로 아직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태. 탑라인 결과 발표는1H26 내로 예상.
- **디앤디파마텍:** 화이자(PFE US)는 이번 JPMHC 2026에서 멧세라(MTSR US)의 경구 포트폴리오(GLP, 아밀린, GLP/GIP)에 대해 언급. 멧세라의 경구용 펩타이드 조합 데이터에 자신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아 연내 디앤디파마텍의 경구용 펩타이드 파이프라인에 대한 임상 업데이트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그 외에도 2Q26에는 MASH 치료제 DD01 48주 생검 결과 업데이트도 예상.
- **에이비엘바이오:** 노바티스(NOVN SW/NVS US)의 SciNeuro 딜에서 보듯 BBB 셔틀은 글로벌 빅파마의 관심사. 에이비엘바이오의 IGF-1R 기반의 BBB 셔틀은 추가 기술 이전 가능성 높음.
- **올릭스:** 2Q26에는 OLX702A(MASH 치료제, 파트너사 일라이 릴리) 임상 1상 결과 업데이트 예상. 데이터가 긍정적일 경우 siRNA 플랫폼 가치 리레이팅. OKX301A(황반변성 치료제)도 임상 1상 결과 기반으로 기술 이전 기대. 그 외에 새로운 비만 치료 타깃 ALK7 및 CNS 플랫폼 고도화를 통해 글로벌 제약사와의 파트너링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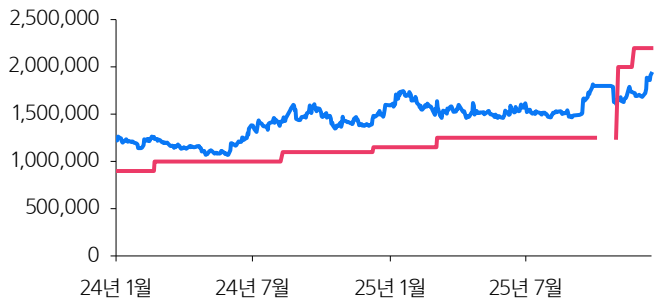
기대를 넘어 실적으로 보여주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러한 섹터 하락 압력 속에서도 주가 견고. KOSPI 내 실적 가시성이 높은 헬스케어 섹터 대형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로 집중되는 순환매 효과 및 현재의 높은 원 달러 환율은 실적 성장의 강력한 요인으로 2026년 예상 매출액 5조 3,111억원(+18.6% y-y), 영업이익 2조 4,504억원(+18.7% y-y)으로 추정되는데, 달러 강세가 유지될 경우 실적 컨센서스 상회 가능성 높음. 해외 공장 인수 비용 등 일부 부담 있으나, 달러 기반의 높은 이익이 이를 상쇄할 것으로 예상. 또한 이번 JPMHC 2026에서 6공장 착공 계획 및 신규 모달리티 CDMO 설비 투자 확인되면서 중장기 성장 동력 확인. 최근 인수한 미국 록빌 공장(6만 리터)을 통해 미국 생물보안법 발표에 따른 반사 수혜를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거점 확보. 또한 기존 항체 의약품 외에 펩타이드, mRNA 등 차세대 모달리티에 대한 생산 시장 선점 전략도 확인.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2026년 1월 13일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와(과) 계열사 관계에 있습니다.
- 당사는 2026년 1월 13일 현재 지난 6개월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M&A자문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의 애널리스트는 2026년 1월 13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2026년 1월 13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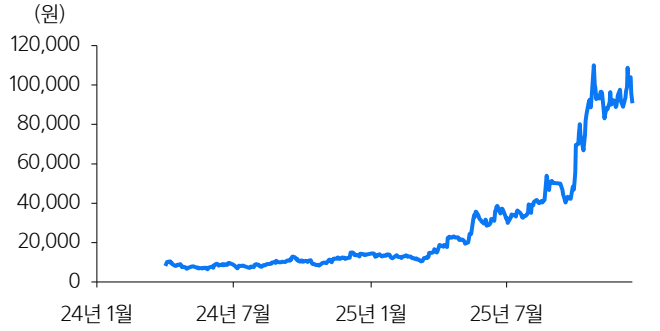
2년간 목표주가 변경 추이

삼성바이오로직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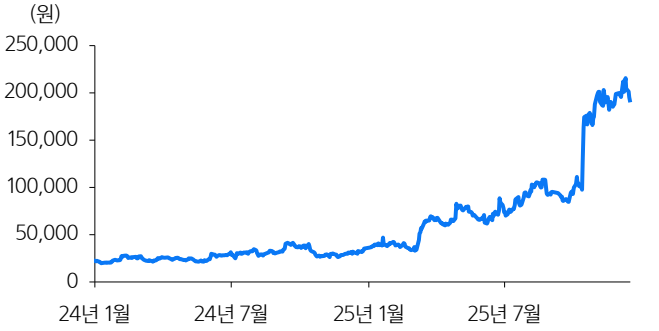


한미약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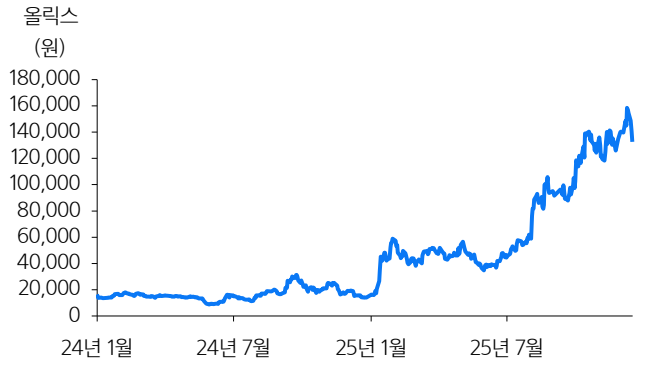
디앤디파마텍



에이비엘바이오



올릭스



최근 2년간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변경 (수정주가 기준)

삼성바이오로직스							
일 자	2023/9/25	2024/3/22	9/9	2025/1/8	4/3	12/1	12/22
투자의견	BUY	BUY	BUY	BUY	BUY	BUY	BUY
TP (원)	900000	1000000	1100000	1150000	1250000	2000000	2200000
괴리율 (평균)	-15.82	-17.24	-9.90	-5.19	-16.56	-15.26	
괴리율 (최대or최소)	-4.56	-0.90	-0.82	3.04	-1.44	-10.50	

한미약품		
일 자	2024/1/11	2025/12/1
투자의견	BUY	BUY
TP (원)	400000	550000
괴리율 (평균)	-21.89	
괴리율 (최대or최소)	-11.75	

디앤디파마텍	
일 자	2026/1/14
투자의견	Not Rated
TP (원)	n/a
괴리율 (평균)	
괴리율 (최대or최소)	

에이비엘바이오	
일 자	2026/1/14
투자의견	Not Rated
TP (원)	n/a
괴리율 (평균)	
괴리율 (최대or최소)	

올릭스	
일 자	2026/1/14
투자의견	Not Rated
TP (원)	n/a
괴리율 (평균)	
괴리율 (최대or최소)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 삼성증권은 기업 및 산업에 대한 투자등급을 아래와 같이 구분합니다.

*2023년 7월 27일부로 기업 투자 등급 기준 변경

기업

BUY (매수) 향후 12개월간 예상 절대수익률 15% 이상
그리고 업종 내 상대매력도가 평균 대비 높은 수준

HOLD (중립) 향후 12개월간 예상 절대수익률 -15%~ 15% 내외

SELL (매도) 향후 12개월간 예상 절대수익률 -15% 이하

산업

OVERWEIGHT (비중확대) 향후 12개월간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대비 5% 이상 상승 예상

NEUTRAL (중립) 향후 12개월간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과 유사한 수준 (±5%) 예상

UNDERWEIGHT (비중축소) 향후 12개월간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대비 5% 이상 하락 예상

최근 1년간 조사분석자료의 투자등급 비율 2025.12.31 기준

매수(85.8%)·중립(14.2%)·매도(0%)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NCSI KS-SQI KCSI KCPI cc 소비자중심 Best Korea Brands 2024 1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